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배경변인별 차이와 관계 분석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조 발 그 니

전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도덕성을 기르는 데 종교성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총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으로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종교일치에 따라 청소년의 종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형태, 훈육방식에 따라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 종교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청소년의 신앙경력, 신의 상선벌악 의식에 따라 종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섯째, 종교집단 안에서는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의 보완을 위해 가족 특성에 따른 종교성과 도덕성 특히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딜레마 등을 종단적으로 연구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 종교성, 도덕성, 성, 또래관계, 청소년

I. 서 론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보다 적합하게 파악되며, 종교는 도덕형성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의 확립과 가치관 형성의 기초가 되는 때이다.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인생 후기에 확고해질 정체성과 도덕적 성품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청소년 시기의 종교성과 도덕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드물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사회학적 견지에서 정의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가 종교를 단순히 종파나 종교 유무와 같이 단순한 차원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알아보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사회에서 적용 가능하고 요구되는 청소년의 도덕성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배경변인에 따른 종교성과 도덕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종교성과 도덕성 사이에 어떤 변인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종교교육의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성과 도덕성은 가족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종교성과 도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개인 특성에 따라 종교성과 도덕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종교성의 하위요소는 도덕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른가?

여섯째,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간의 관계가 또래관계에 따라 다른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종교성

종교성은 종교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와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수행에 정진하는 종교행위¹⁾”로 정의한다. 즉 종교적인 신앙, 태도, 의식 따위의 정도, 종교제도에 대한 개인

1) 반신환, 「대학생의 종교, 종교성, 윤리의식 및 종교적 대처」, 『종교연구』 34, 2004, 27쪽.

의 헌신의 제 측면으로서 종교적 성숙을 말한다. 그렇지만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종교성은 종교의 교리나 실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특성에 관심을 두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종교성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개인의 종교 활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²⁾ 그래서 본 연구에서 종교성은 공동체적 특성인 종교적 활동으로서 종교생활과 사회와 관련된 종교적 실천으로서 종교윤리를 말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종교성을 종교생활과 종교윤리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종교성의 측정에 있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성을 종교 유무, 종파 및 종교집회 참석 여부, 종교 교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단순한 지표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종교의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측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³⁾

그래서 종교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선 종교적 신앙 혹은 종교적 몰입동기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서 Allport와 Ross의 내재적 종교정향과 외재적 종교정향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외재적 정향의 사람들은 종교를 여러 방면에 수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정향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을 그 자체로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⁴⁾

King과 Hunt는 이전의 다차원적인 종교성 척도들이 다차원적인 가정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부족하고, 여러 차원들의 상관관계를 통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종교성 차원에 관한 학자들의 제안을 고찰한 결과, 세 개 영역 열세 개의 차원, 121개의 항목을 작성했다.⁵⁾ 또한 Malony(1982)는 종교적 신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생활하는데 8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시한 Pruyser의 기능신학을 바탕으로 “신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인터뷰”(Religious Status Interview)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Massey와 Hadlock(1988)이 재검토하여 “신앙상태목록”(Religious Status Inventory)이라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의 척도는 8개의 영역에 각 20개 문항씩 총 1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연구한 King과 Hunt의 측정도구와 Massey와 Hadlock의 종교성 측정도구를 통해 종교성을 알아보았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의 목표를 지지케 하고 사기를 북돋우어 주며 일체화의 요소를 제공한다.⁷⁾ 둘째, 종교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는 개인적인

2) 김중서, 『종교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4-15쪽.

3) 한내창,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2001, 194-198쪽.

4)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183-194쪽.

5) King, M. B., & Hunt, R.,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s: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975, p.13-22.

6) 권택조, 『영성발달: 신학적 교육심리학적 통합모델』, 서울: 예천사, 2003, 65-68쪽.

7)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05, 209-211쪽; O'Dea, T. F., The sociology of religion, 권규식 역, 『종교사회학인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31쪽.

바람이나 욕망, 본능이나 요구에 대하여 집단적인, 사회적인 목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성화시킨다.⁸⁾ 셋째, 종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쳐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⁹⁾

따라서 종교는 도덕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교는 도덕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Durkheim은 말했다.¹⁰⁾

2. 도덕성

지금까지 도덕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심리학적 기반 위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도덕성의 개념 역시 도덕인지능력이나 공감과 같은 심리학적 개념에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도덕성은 Durkheim¹¹⁾ 이래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고영역이라기 보다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의 문제로 사회의 필요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행위규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그리하여 구성원 상호에게 기대되고 선호되는 행동, 집단 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혹은 그러하기를 바라는 삶의 가치와 방식을 몸에 익혀가는 주체적인 태도 또는 행위¹²⁾”를 도덕성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도덕성을 배려·헌신·봉사, 공동규칙·법 준수, 인간애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한편, 도덕성의 측정은 대체로 도덕추론능력, 도덕판단능력을 도덕성으로 보는 Kohlberg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덕판단능력은 구체적 일상이 아니라 추상적 상황으로 일상생활에서 도덕실천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견지에서는 적합한 측정방법이 아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도덕성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하나는 덕목수합접근법에 따른 것으로 누구나 동의하리라고 생각되는 덕목들의 리스트를 만든 후 그에 따른 도덕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권위존경접근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권위, 규칙, 지역사회의 가치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검사하는 방법이다.¹³⁾ 이와 같은 측정방법에

8) 이원규, 앞의 책, 211-212쪽; O'Dea, T. F., 앞의 책, 30쪽.

9) 김광기·강은덕·김상현·신대숙, 「종교성이 청소년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6, 2004, 179-199쪽.

10) 양영진, 「뒤르캤의 종교의식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 26, 1992, 121-144쪽.

11) Durkheim은 도덕규칙은 여러사람들의 공통의식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도덕성을 “무엇이 일탈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였다. 송정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서울: 서원, 1996, 82쪽.

12) 박효정·정광희·유균상·원현주,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20쪽.

13) 이영주, 「현대 도덕교육의 쟁점」, 『국민윤리연구』 52, 2003, 266-267쪽.

부합하는 측정도구로 한국인의 도덕성 지표를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도덕성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할 뿐 아니라 가치 규범에 대한 내적, 주관적 의식이나 행위를 측정하여 사회 전반의 중요한 관심 사항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측정도구¹⁴⁾”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박효정과 정광희¹⁵⁾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개발한 중고등학교의 도덕성 지표 중 세 개의 영역을 추출하여 도덕성을 측정하였다.

3. 종교성 및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사회학적 변인

1) 가족 특성

종교성과 도덕성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생활 환경을 통한 사회화의 과정 안에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종교성과 도덕성의 세대 간의 전승은 가족을 통해서 이뤄진다.

청소년의 종교적 규칙은 어릴 때부터 강화된 가족주의의 영향을 받고¹⁶⁾부모의 종교출석은 자녀들의 도덕태도에 영향을 준다.¹⁷⁾ 또한 가족예배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의 일원으로서 재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높인다.¹⁸⁾ 한편 가정교육의 방식이나 훈육태도 및 부모간의 친밀도, 가정 내 안정성 등은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초자아발달, 비행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¹⁹⁾ Smetana는 부모의 온정과 지지가 자녀들이 부모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가능성을 높게 하고 부모의 도덕적 요구를 자녀들이 더 잘 따르게 한다고 하였다.²⁰⁾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특성에 따라 종교성과 도덕성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O'Dea에 따르면 상위계층은 막대한 재력으로 종교의 자동적 지도자로 인식된다. 중간계

14) 박효정 외, 앞의 책, 5쪽.

15) 박효정·정광희,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1.

16) Benda, B. B., & Corwyn, R. F.,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1), 1997, pp. 81-92.

17) Scheepers, P., Grotenhuis, M. T., & Slik, F. V(der)., Education, religiosity and moral attitudes: Explaining cross-national effect differences, *Sociology of Religion*, 63(2), 2002, pp. 157-176.

18) Lee, J. W., and Gail T. R., & Gillespie, V. B., Family worship patter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dolescent behavior and belie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3), 1997, pp. 372-381.

19) 이길홍·김현수·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21(4), 1982, 611-627쪽.

20) Smetana, J. G., The role of parents in moral development: A social domain analysi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1999, pp. 311-321.

충은 도덕과 교리를 강조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강조하고 교회의 핵심이다. 하위계층은 감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주술적인 면이 많아 기적을 요구하고 교리를 생활화하는 것보다 그저 보상심리로 종교를 이용한다.²¹⁾

Tarkey는 도덕적 판단과 사회계층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²²⁾ 박병희·또한 박병희, 장경준과 신지용은 비행 청소년과 정상대조군을 비교할 때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²³⁾ 그러나 강완숙은 부모 교육수준이 친사회적 행위와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²⁴⁾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신앙 경력

신앙 경력은 삶의 주 동기를 종교에서 발견하여 종교적 믿음과 계율을 내면화하고 일상 생활과 종교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앙 경력과 도덕발달이 정적관계라는 연구가 우세하였다.²⁵⁾ 그러나 오승은의 연구는 신앙 경력에 따른 종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p < .05$ 1-2년의 신앙 경력 집단이 가장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²⁶⁾

4) 청소년의 신에 대한 상선별악 의식

청소년들은 신이 자신의 잘한 일과 잘못된 일을 사후에 심판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린다고 생각한다.²⁷⁾ 따라서 그들은 신을 상선별악의 존재로, 정의의 심판자로 느끼지만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신의 상선별악에 대한 의식이 도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으나, 만일 그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의 상선별악에 대한 의식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고 만다.²⁸⁾ 이는 종교교육이 예방 차원과 일탈행위 후 교화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21) O'Dea, T. F., 앞의 책, 105-110쪽.

22) 송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52쪽에서 재인용.

23) 박병희·장경준·신지용,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의 도덕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1996, 594-602쪽.

24) 강완숙,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98, 11-23쪽.

25) 박종영·이종현,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3), 1982, 159-171쪽.

26) 오승은, 「삶의 목적 수준과 종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7) 김국환, Fritz K. Oser의 종교적 판단 발달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종교적 성향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02쪽.

28)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42쪽; Burkett, S. R., &

시사한다.

5) 종교성과 도덕성에서의 성별 차이

기존의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적 교리에 대한 믿음이 높고 절대자와의 개별적 소통에 있어서 경건성도 깊으며, 의례에 있어 참여를 잘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성이 높다고 한다.²⁹⁾ 그러나 박영신의 서울시내에 재학하는 기독교 신자인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대생이 여대생보다 높은 종교성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종교성의 하위 영역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³⁰⁾

한편, 도덕덕목에 있어서는 성차가 있을 수 있다. Rest는 도덕 판단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검토한 결과 22개의 연구 결과 중 2개의 영역에서만 성차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³¹⁾ 또한 Gilligan에 의하면 Kohlberg의 자율성, 권리, 그리고 정의 이슈들에 대한 관심은 남성의 도덕성이고,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배려, 감응, 상호의존과 같은 배려 정향은 여성의 도덕성이다.³²⁾

한편, 양병한과 김종구의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요소 중 신뢰성에서 종교유무 및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³³⁾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와 도덕 사이에 제3의 변인으로서 성이 종교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하여 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다.

4.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1)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정적 영향력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정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성이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조장한다. 종교경험이 도덕성 형성과 관계를 지녀, 종교유무나 종교출석에 따라 더 높은 도덕성을 보였다.³⁴⁾

Bruce, O. W., Adolescent marijuana use: a panel study of underlying casual structures, *Criminology* 25, 1987, pp.109-131.

29) Johnstone, R. L., *Religion in Society*, New Jersey: Prentice Hall, 2001, pp.247-250.

30) 박영신,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수준과 종교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1) 양병한·김종구, 「종교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 1994, 57쪽.

32)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5, 335쪽.

33) 양병한·김종구, 앞의 글, 51-69쪽.

34) 권승혁, 「도덕성 발달과정의 자기보고 분석」, 『도덕교육학연구』 3, 2002, 59-84쪽, 김정규, 「청소년 일탈과 성의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3(2), 2006, 118쪽, 전성표, 「개신교

둘째, 종교성이 친사회적 행위를 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가능케 한다. 종교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교성이 낮을수록 자살시도, 약물복용, 혼전(婚前) 성관계 등의 비행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³⁵⁾

셋째, 종교는 힘든 생애사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원천으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양식, 그리고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³⁶⁾

2)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부정적 영향력

종교성이 도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부정적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chran 등의 연구에서 종교성은 친사회적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또한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나 성경공부의 빈도 등은 비행이나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전성표는 기독교가 비행을 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행이나 범죄를 부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³⁸⁾ 그리고 가정에서 자주 예배를 보는 청소년일수록 물질주의적 성향이 높고, 약물이나 음주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³⁹⁾

종교인의 경우, 도덕적 판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Guttman은 종교를 지닌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⁴⁰⁾

이상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론들이 일관되지 않는 이유는 종교가 도덕의 여타변인에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금까지 종교성과 도덕성의 측정이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과 무종교인 사이의 도덕성 차이와, 개신교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 『한국사회학』 34, 2000, 1071쪽.

35) 김정규, 앞의 글, 120-123쪽; Benda, B. B., & Corwyn, R. E., 앞의 글, pp. 81-92; Scheepers, P., Grotenhuis, M. T., & Slik, F. V(der), 앞의 글, 157-176쪽.

36) 김광기·강은덕·김상현·신매숙, 앞의 글, 16, 2004, 179-199쪽; Batson, C. D.,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1), 1976, pp. 29-45.

37) Cochran, J. K., Wood, P. K., & Arneklev, B. J., *Is the religiosity-delinquency relationship spurious?: A test of arousal and social control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1994, pp. 92-123; Hirschi, T., & Stark, R., *He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 1969, pp. 202-213.

38) 전성표, 『기독교와 사회통제: 도덕적 통제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회』, 1999, 205쪽.

39) Lee, J. W., and Gail T. R., & Gillespie, V. B., *Family worship patter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dolescent behavior and belie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3), 1997, pp. 372-381.

40) Guttman, J., *Cognitive morality and cheating behavior in religious and secular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7(4), 1984, pp. 249-254.

5. 또래관계의 영향력

청소년들은 친구 따라 종교기관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화를 실험하기도 한다.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어떤 연령에서보다 청소년기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며 재구성되는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또래들은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이전에 부모가 차지했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⁴¹⁾ 청소년들은 행동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변화되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에 따라 그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집단의 성원들로부터 승인여부와 소속여부가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발달과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⁴²⁾ 따라서 주로 또래집단의 구성원은 “서로 유사한 성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며, 그것이 집단의 규칙에 대한 동조압력⁴³⁾”이 되기도 한다.

또래관계는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반사회적 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훨씬 크게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⁴⁾ 따라서 또래관계는 종교성과 도덕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또래관계가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작용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A 남자 중학교 학생 225명, 동구 소재 B 여자 중학교 학생 109명, 남구 소재 C 여자 중학교 학생 146명, 서구 소재 D 중학교(남녀공학) 학생 228명과 강진군 읍 소재지 E 여자 고등학교 학생 116명 총 824명이었다. 불성실 응답 설문지와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거한 730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A중 2명, B중 3명, D중 2명, E고 2명의 총 9명을 심층면담하였다.

41) Coleman, J. C., & Hendry, L. B., 강영배·김기현·이은주 역,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파주: 성안당, 2006, 237-240쪽.

42) 김형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43) Coleman, J. C., & Hendry, L. B., 앞의 책, 241쪽.

44) 유현정, 「인구학적 변인, 부모관련변인 및 또래동조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측정도구

1) 종교성 측정 설문지

(1) 종교생활

Hunt와 King(1975)이 개발한 종교성 척도 중 혼합적인 종교 영역에서 행위의 정도는 종교의 사회공동체적인 면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행위 특성을 알아보는 행위의 정도는 적절한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를 종교생활이라 정의하고,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종교생활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7개이고,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Hunt와 King이 산출한 신뢰도는 본 척도의 Cronbach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이었다.

(2) 종교윤리

Massey와 Hadlock(1988)이 Malony의 척도를 재검토하여 개발한 “신앙상태목록”(Religious Status Inventory) 중 윤리적 존재는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적당하다. 이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분석을 하여 종교성 전체와 종교생활과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종교윤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9개였고,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2) 도덕성 측정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1년에 개발한 중고등학생의 도덕성지표 중 세 개의 영역을 통해 도덕성을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종교의 기본적 윤리인 사랑, 자비, 그리고 인(仁)의 원리에 따라 보편적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인간애와 배려·헌신·봉사, 종교의 사회윤리로서 사회통합과 질서인 공동규칙, 법 준수로 보는 선행연구의 근거를 따라⁴⁵⁾ 도덕성의 대표적인 세 개의 영역을 인간애, 배려·헌신·봉사, 공동규칙·법 준수로 보았다. 또한 Kohlberg의 도덕개념인 “정의”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볼 수 있는 공동규칙·법 준수와 Gilligan의 도덕개념인 “배려”의 대표적인 덕목인 배려·헌신·봉사, 인간애를 살펴볼 때 도덕성에 있어서 성차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배려·헌신·봉사

배려·헌신·봉사는 장애인·노약자(불우 노인, 소년 소녀 가장)와 같이 약자에 대한 배

45) Aubert, J. M., *La conscience et la loi*. In Laubert, B. & Refoulé, F. (Dir.), *Initiation à la pratique de la théologie IV*, Paris: Cerf, 1993, pp. 200-248.

려, 교통 받고 불행에 처한 재해 이웃, 불우 이웃 돕기, 호스피스, 사회 시설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원래 척도상 이름은 연민·헌신·봉사이지만 연민이 주로 배려의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연구자 배려로 정의하였다. 문항은 5개이고,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7$ 이었다.

(2) 공동규칙·법 준수

공동규칙·법 준수는 도로 상의 껌이나 쓰레기 투척, 노상 방뇨 등 경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 예절, 흡연금지 구역 준수, 아파트 등 공동 주거지에서 생활규칙 준수 등 우리사회의 규범, 혹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상호 합의 하에 만든 규칙이나 약속 지키기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9개이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4$ 이었다.

(3) 인간애

인간애는 인간은 인종, 종교, 직업, 성별, 빈부, 장애, 교육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다는 보편적 인간애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게 세부내용이 선정되어 있다. 인간애는 원래 척도상 평등·인권 존중이었지만 평등 및 인권 존중이 주로 보편적인 인간애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종교의 윤리적 개념과 관련하여 생각하고자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인간애로 연구자가 정의하였다. 문항은 9개이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6$ 이었다.

3)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오경희⁴⁶⁾의 또래동조성 척도 16문항 중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8문항이다. 그 이유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또래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인 또래동조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⁴⁷⁾의 근거에서이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문항만을 선택한 이유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친사회적 행동보다는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⁴⁸⁾에 따른 것이다.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 하였으며 낮은 점수일수록 반사회적 행위에 동조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한다. 오경희(1990)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또래동조성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이었다.

46) 오경희,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47) 유현정, 앞의 글.

48) 김형태, 앞의 글.

3. 심층면담

본 연구는 Creswell이 제시한⁴⁹⁾ 삼각측정설계와 Tashakkori와 Teddie이 제시한⁵⁰⁾ 주-부패러 다임 혼합설계에서 양적 연구 주도형(QUAN-qual)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위요소로 연구의 초점과 변수는 양적 연구의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심층면담은 대상 학교에서 2-3명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표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서 천주교 신자인 학생을 교사의 도움을 받아 9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 동의서와 반구조화된 면담지침서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 12.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다음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변량분산분석을 하여 여러 배경변인들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그리고 종교성과 도덕성의 성차를 살펴보고,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및 또래관계와 종교성 및 도덕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래관계의 조절효과⁵¹⁾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녹음된 심층자료와 면담동안 노트를 해둔 자료를 풀어쓰기를 하였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횡단적, 범주적 지표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 분석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은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명이다.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중적 관점으로 여러 문헌을 참조하고 윤리신학 전공교수 1명이 검토하였다.

49) Creswell, J. W.,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Upper Saddle River, N. J.: Merrill Prentice Hall, 2002, pp. 559-576.

50) Tashakkori, A., & Teddie, C, 염시창 역, 『통합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01, 189-204쪽.

51)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였거나 기대와 달리 약할 경우 어떤 제3의 변수가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있는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이 제3의 변수를 조절변수(moderator)라고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종교성과 도덕성이 일관된 관계를 지니지 못한 이유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의 문제로 그리고 종교성과 도덕성 사이에 제 3의 조절변수의 효과로 예상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1. 배경변인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1) 가족 특성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1) 부모 동거 형태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부모 동거 형태에 따른 종교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도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동거 형태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의 경우 하위 변수 중에서는 공동규칙·법 준수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가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공동규칙·법 준수 점수가 높은 것($p < .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에 의해 도덕가치가 전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와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어머니와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도덕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의 경우 종교생활에서만 유의하였다. 심층면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신앙에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은 대체로 어머니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종교의식 중의 봉사에 참여를 권유하였다(오경근, 조정희).

“엄마가 막 복사도 하라 하고”(오경근)

“엄마가..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권유를 하셔서 복사활동도 했고요. 첫영성체 받고 4학년 때 부터 지금도 한 번씩 서요.”(조정희)

그러나 어머니와의 종교 일치 여부에 따른 도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층면담의 결과 어머니들이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종교 활동이 학업에 지장이 될까 봐 종교 참석을 당분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너 지금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못 다니게 해요.”(신봄)

(3) 부모 훈육방식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훈육방식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덕성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훈육방식에 따른 도덕성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심층면담 결과 자녀의 훈육은 주로 어머니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머니의 훈육태도라고 한 설명형은 심층면담의 결과 남과 비교하고(오경근, 윤빛나), 옛일을 끄집어내는(조정희)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인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길어지고 반복되는 어머니의 설명형 훈육태도, 즉 ‘잔소리’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박기현).

“저랑 다른 친구랑 비교할 때 그 아이는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더라(오경근)”

“무시하는 그런 거 다른 애들이랑 비교...전형적인 그런... 누구네 집 아이는 공부를 알아서 한다더라...”(윤빛나)

“엄마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그 문제만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건 네 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미 지난 옛날 이야기까지 다 꺼내셔서 넌 그때도 이랬고 이때도 이랬고...”(조정희)

“잔소리요(인상을 쓰며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제가요? 그냥 씹어요.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계속 하고 싶은 거해요...그러다 계속 뭐라 하면 저도 화내요.](박기현)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1) 부모 소득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부모 소득에 따른 종교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성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 소득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간애에서 중하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그러나 공동규칙·법 준수의 경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아버지 직업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아버지 직업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도덕성에서는 공동규칙·법 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종교생활과 종교윤리에서 모두 상위집단이 중하집단과 중상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한편, 아버지 직업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위집단이 중하집단보다 공동규칙·법 준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3) 아버지 학력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아버지 학력에 따른 종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도덕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종교성의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심층면담 결과 아버지 학력이 높고 전문직이었을 때 참여학생들은 면담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이기선, 박한별, 한겨레). 아버지들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 종교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를 맡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유하거나 종교적인 모범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박한별의 경우, 아버지가 성당에 가라고 말을 하지만 설득 혹은 설명은 하지 않고 야단만 칠 뿐 종교적 가치전승의 당위성은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빠가 가라고 해서...혼내요...왜 안가냐고...”(박한별)

3) 청소년 개인 특성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1) 청소년의 신앙 경력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청소년의 신앙 경력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도덕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신앙 경력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종교 생활은 5년 이상 집단이 1년 이하 집단과 3년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p < .05$), 2년 집단이 1년 이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5$). 또한 종교윤리는 5년 이상 집단이 1년 이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2) 청소년의 신에 대한 상선별악 의식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청소년의 신에 대한 상선별악 의식에 따른 종교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도덕성의 차이는 인간애에서만 유의하였다. 신의 상선별악을 의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종교생활과, 종교윤리를 보였다($p < .001$). 신의 상선별악 의식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는 인간애에서만 신의 상선별악을 의식한 집단이 의식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5$). 즉, 신의 상선별악 의식이 청소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신의 상선별악을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라 간접적인 제재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주로 엄마가 알아버린다거나 혹은 자신의 일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신의 벌로 생각을 하였다.

“[잘못한 일을 하고 난 뒤, 어떻게 하느님이 알게 되는데]바로 그.. 엄마한테 ...[벌을 받게 되요] 또는 언젠간 벌 받을 것이다(느끼죠)”(오경근)

“거짓말을 하면 엄마한테 잘 들키거든요. 하느님이 엄마한테 무슨 느낌을 주시는 거 아냐. 뭘 깨뜨렸거나 그럴 때 (깨뜨려 놓은 것을) 숨겨놓거나 그러면 엄마가 그걸 금방 아시더라고요.”(조정희)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종교성 및 도덕성의 차이

종교성에 있어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덕성에 있어 성차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의 경우, 하위변수 중에서는 공동규칙·법 준수와 인간애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01$).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서구사회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변화로 남녀 간의 평등이 구현되고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비슷해지면 도덕성에서의 성차는 구시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⁵²⁾

2.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1) 종교성과 도덕성의 상관

연구 대상 전체의 종교성과 도덕성은 <표 IV-1>과 같다. 종교성과 도덕성 각각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을 보면, 종교생활은 도덕성의 하위요소 중 배려·헌신·봉사와 .31($p < .001$), 공동규칙·법 준수와 .13($p < .01$) 그리고 인간애와 .08($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종교생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도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종교윤리는 도덕성의 하위요소 중 배려·헌신·봉사와 .37($p < .001$), 공동규칙·법 준수와 .23($p < .01$) 그리고 인간애와 .08($p < .05$) 수준에서 종교윤리가 높을수록 도덕성도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종교성과 도덕성은 각각 그 요소끼리(종교성 .71, 도덕성 .31~.38)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도덕성과 종교성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2)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교성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IV-1> 종교성과 도덕성의 상관

	종교생활	종교윤리	배려·헌신	규칙·준수	인간애
종교생활					
종교윤리	.71***				
배려·헌신	.31***	.37***			
규칙·준수	.13**	.23***	.31***		
인간애	.08*	.08*	.38***	.33***	
평균	1.67	2.19	2.72	3.08	3.92
표준편차	.84	.70	.71	.68	.61

* $p < .05$. ** $p < .01$. *** $p < .001$.

52) Damon, W., The moral child, :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조강모 역, 『아동 도덕발달과 열린교육』, 서울: 문음사, 1997, 187-188쪽.

〈표 IV-2〉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예언변수 (종교성)	종속변수 (도덕성)	β	t	R^2	F
종교생활 종교윤리	배려·헌신	.101 .298	2.072* 6.096***	.142	60.285***
종교생활 종교윤리	규칙·준수	-.070 .278	-1.362 5.412***	.054	20.945***
종교생활 종교윤리	인간애	.056 .036	1.059 .688	.007	2.671

* $p < .05$, ** $p < .01$, *** $p < .001$.

는 <표 IV-2>와 같다.

종교성의 하위요소가 도덕성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R^2)은 0.7%에서 14.2%정도 이었다. 종교윤리는 배려·헌신·봉사와 공동규칙·법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은 배려·헌신·봉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종교윤리와 종교생활 모두 인간애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에서 청소년들은 종교계명을 일반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덕목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더 도덕적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이기선)

“십계명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게 다 알게(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켜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꼭 지켜야겠다.”(조정희)

“(성당을 다녀서) 친구들보다 나쁜 행동을 덜 하는 거 같아요.” (박한별)

“(성당을) 다님으로 해서 나쁜 길로 가기 보다는 더 좋은 길로 가게 해 주는 거 같아요.” (신봄)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종교성과 도덕성의 상관

남학생의 경우, 종교성과 도덕성의 하위 요소 간 상관은 종교생활과 배려·헌신·봉사(.28, $p < .001$), 공동규칙·법 준수(.17, $p < .01$), 종교윤리와 배려·헌신·봉사(.35, $p < .001$), 공동규칙·법 준수(.23, $p < .001$)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종교생활과 배려·헌신·봉사(.28, $p < .001$), 공동규칙·법 준수(.17, $p < .01$) 그리고 종교윤리와 배려·헌신·봉사(.35, $p < .001$), 공동규칙·법 준수(.23, $p < .001$)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녀 모두 종교성

의 하위요소와 인간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남학생의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 종교성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종교성의 하위요소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R^2)은 1.4~12.5% 정도이었다. 종교성의 하위요소 중 종교윤리가 배려·헌신·봉사($p < .001$)와 공동규칙·법 준수($p < .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종교생활은 도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여학생의 도덕성에 대한 종교성의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 종교성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종교성의 하위요소가 여학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R^2)은 0.1~15.6% 정도이었다. 종교성의 하위요소 중 종교윤리가 배려·헌신·봉사($p < .001$)와 공동규칙·법 준수($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생활이 공동규칙·법 준수($p < .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종교윤리는 인간애에 종교생활은 배려·헌신·봉사와 인간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4)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변수가 범주변수인 경우 조절효과는 각각 개별집단의 모형분석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 집단별 *par* 변수 사이의 값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par* 변수가 만나는 CR(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을 확인하여 *par*의 절대값이 -1.96보다 적다면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⁵³⁾

본 연구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배려·헌신·봉사와 인간애 사이에 상관이 있는 관계를 전제로 두었다. 이는 도덕에서 성차를 볼 경우, 남성중심의 도덕개념인 “정의”에 따라 공동규칙·법 준수와 여성중심의 도덕 개념인 “배려”에 따라 배려·헌신·봉사와 인간애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IV-3>에서 보듯이 TLI 와 CFI 가 .90보다 높아야하고, RMSEA가 적어도 .10보다 작아야 한다는 모형적합도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여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각 집단별 *par* 변수 간의 값을 살펴보면, *par* 변수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아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과 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종교 내의 활동이나 교리 혹은 생활 등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도덕성숙을 위해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심층면담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비도덕

53)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2007, 436-441쪽.

〈표 IV-3〉 종교성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 검증

	χ^2	df	TLI	CFI	RMSEA
성별 변인의 조절효과	49.362	6	.83	.95	.100
모형	b	SE	CR		
남학생	.238	.061	3.888		
여학생	.078	.035	2.228		
차이			-2.269		

적인 문제를 얼마나 자신의 종교와 관련하여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종교가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오경근)거나 이타적 행동을 이끌지 못했다(박기현)고 말했다. 반면 여학생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 봉사를 할 수도 있다거나(윤빛나)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나쁜 일 하다 들키면] 들키면 들킨 거라 생각해요.[하느님은 어찌실 것 같아:]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기현)

“[봉사를 많이 다녀:] 아니요.[가는데 싫어:] 네. 귀찮아요” (오경근)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같고, 종교 단체에서 돕는 일 같은 거 많이 하면 성당 같은 데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그 쪽으로 좀 더 많이 도와주게 되고.”(윤빛나)

종교교육이 친사회적 행위를 조장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의 상선별악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여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남학생에게는 심판자로서 신에 대한 공포가 결국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심층면담에서 남학생들은 신을 쉽사리 용서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오경근).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신을 기도를 통해서나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비로운 존재로 보고 있다(신봄).

“[하느님이 벌주는 거는 지금 당장 줄까:] 당장 주겠죠. [용서는:] 없어요.”(오경근)

“용서 빌게 한번 날 잡아서 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면 잠잘 때나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잘못된 거 다 용서 해 주세요. 이래요.”(신봄)

4) 또래관계,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

(1) 또래관계, 종교성 및 도덕성의 상관

또래관계는 종교성 및 도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전체 집단에서 또래관계는 종교생활과 .15($p < .001$), 종교윤리와 .20($p < .001$)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종교성이 높을수록 또래관

계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는 배려·헌신·봉사와 .27($p < .001$), 공동규칙·법 준수와 .52($p < .001$) 그리고 인간애와 .33($p < .001$)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또래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교집단의 경우 또래관계는 종교생활과 .23($p < .001$), 종교윤리와 .28($p < .001$)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또래관계는 배려·헌신·봉사와 .30($p < .001$), 공동규칙·법 준수와 .55($p < .001$), 인간애와 .35($p < .001$)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또래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성 및 도덕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종교성에 대한 또래관계의 회귀분석 결과

연구대상 전체집단에서 또래관계의 영향이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또래관계의 영향이 종교성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R^2)은 2.4%(종교생활), 4.1%(종교윤리)정도이었다. 또래관계는 종교생활, 종교윤리 모두($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교 안에서 친구와의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청소년들은 친구가 종교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하지 않는다고거나(박기현, 박한별, 신봄) 종교로 인해 더 깊은 유대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조정희).

“(친구랑) 학교가 갈라져가지고요 (성당에) 안다녀요...친구랑 같이 나갔는데요...개 때문에 제가 갔어요. 안 갈라해도.”(박기현)

“친구가 (성당 행사에) 간다하면 가요”(박한별)

“지금 (성당에) 좀 안 나가고 있거든요. 00이도 안 나오고, 00이도 안 나오고, 00이도 안 나오고, 00이도 안 나오고, 저도 안 나오고, 한 다섯 명 안 나올거예요”

“XXX(성당 모임) 하는 친구가 초등학교부터 친했던 친구라서 서로 모르는 게 없어서요. 학교는 떨어져 있는데 주일에 성당가면 꼭 만나고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녁에라도 전화해서 서로 고민 이야기 하고(해요)”(조정희)

또한 종교가 하나의 만남을 위한 장소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친구라도 있어야 미사시간에 떠들거나, 미사 끝나고 집에 같이 오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이상하게 쳐다봐요...중학교는 중학교 애들끼리 놀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선생님이랑 놀고 언니랑 놀고 더 많이 참여도 하고, 저녁까지 더 남고, 우리끼리 더 놀자(그러거든요). 내심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놀고 싶은데...”(신봄)

그러나 종교 내에서 만남이 지속적일 경우 종교적 성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당 친구들은 XXX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XXX 이야기 자주하고 그 담에 강론이나 교리 그런 이야기 주로 해요...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같이)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기도나 이런 걸로 많이 도움도 받았던 거 같아요.”(조정희)

학생들 스스로도 종교를 참석하다 보면 종교 성숙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하기도 했다.

“(성당) 다니다 보면 또 신앙심이 생기기도 하고(그러잖아요)...”(신봄)

위의 진술은 종교 내에서 또래관계가 지속적일 때 종교 성숙이 되는 것이고, 종교 내에서 만남이 단지 친교를 위한 만남이었을 경우 신앙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도덕성에 대한 또래관계의 회귀분석 결과

연구대상 전체집단에서 또래관계의 영향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 회귀분석을 하였다. 또래관계의 영향이 도덕성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R^2)은 7.2~27.5% 정도이었다. 또래관계는 배려·헌신·봉사, 공동규칙·법 준수, 인간애 모두($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의 결과 학생들은 또래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목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말을 해봤자 듣지 않는다거나(오경근), 따돌림을 받을까봐(신봄), 주로 그들의 행동에 관여하여 친구 간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이었다.

“(담배피우는 친구에게)이야기 해줘봤자 들을 애들이 아니에요.[근데 왜 안했어](말안함)”
(오경근)

“(친구가 부정행위 할 경우)그만큼 친하니까 말했다가 지금은 선생님한테 보이는 거 보다 애들 친구들끼리가 더 그러거든요(중요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한테 차라리 혼나고 애랑 우정 더 지켜서...(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신봄)

(4)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조절변수가 연속점수일 때 조절효과는 제1독립변수와 제2독립변수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제1변수와 제2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넣고, 연구모형과 화살표를 추가하는 경합 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를 통해서 통계적 유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두 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가 적어도 4를 넘어야 한다.

종교집단에서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종교집단의 경우 카이제곱의 차이가 6.031이 나타나 또래관계 영향에 따른

〈표 IV-4〉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종교집단)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582.534	40	.67	.76	.19
경합모형	588.565	41	.68	.76	.19
차이	6.031	1			

도덕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즉,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는 종교집단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집단 내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있어 종교성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종교성과 또래관계가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종교 내에서 종교성은 또래관계와 상호작용 하여 도덕형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종교집단 내 교우형성이 일탈행위로 이끌어진다는 연구⁵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집단 내에서 종교성이 도덕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또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종교 안에서 또래관계는 친밀감을 가질 때 더 높은 종교성을 지닌다. 또한 친구들이 같은 종교를 가질 때 대화의 폭도 넓어진다. 또한 친한 친구들이 종교 내에 있을 때 종교참여율도 높아지게 되고 종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과는 달리 종교집단은 종교성과 또래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안에서 또래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사한다.

V. 논 의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탐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에서 부모의 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부모의 종교일치 여부는 청소년의 종교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도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부모의 종교적인 태도가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훈육방식에 따라 종교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종교적인 태도가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으로 이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종교 내의 활동이나 교리 혹은 생활 등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도덕성숙을 위해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종교의 기능이 도덕통제와 도덕사회화를 한다면 그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일 경우에 더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도덕성을 위해서 종교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의 존재나 상선벌악에 대한 의식에

54) 김정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인과요인의 변이: 부모통제, 종교성, 비행친구,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3), 2006, 91-123쪽.

있어서 남녀에 따라 다른 종교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종교성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보면, 종교가 배려·헌신·봉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남녀 모두 인간애에서 종교성이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종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인 점을 감안할 때, 종교성이 도덕성 중 인간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세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교 안에서 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인간애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모범과 가르침 그리고 사회봉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종교성과 도덕성 사이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는 종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종교 집단의 청소년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도덕형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종교기관이 청소년의 도덕성 문제의 개입에 있어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 도덕성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말해준다. 종교기관은 단순한 집회나 종교적인 활동 뿐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기능인 도덕성 형성을 위해 또래형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먼저, 가족특성에 따른 종교성과 도덕성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근 학력에 있어 종적학력과 횡적학력이 있고, 직업에 따른 차이도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직업에 따른 분류와 학력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성의 경우 부모의 종교성과 자녀의 종교성이 함께 측정되어야 종교성의 가족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교성을 종단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관련된 종교의 사회기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종교교육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교성의 종단적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종교성을 제대로 구인할 수 있는 종교사회학적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성의 개념을 신앙발달차원에 입각하여 연구가 될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에서 이뤄졌기에 종교성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종교적인 특성이나 각 종교에 맞는 척도이든 종교적 특성을 구인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본 연구는 종교의 도덕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을 위해서 종교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칫 도그마적 세뇌가 될 수도 있다. 종교교육의 방향이 교화적인 입장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심층면담을 시행함에 있어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양가치 간의 명확한 구분과 이로 인한 청소년 갈등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을 밀도 높은 생생한 자료로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완숙,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98
- 권승혁, 「도덕성 발달과정의 자기보고 분석」, 『도덕교육학연구』 3, 2002
- 권택조, 『영성발달: 신학적 교육심리학적 통합모델』, 서울: 예찬사, 2003
-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2007.
- 김광기·강은덕·김상현·신매숙, 「종교성이 청소년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6, 2004
- 김국환, 「Fritz K. Oser의 종교적 판단 발달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종교적 성향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김정규, 「청소년 일탈과 성의식에 대한 종교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3(2), 2006
- 김정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인과요인의 변이: 부모통제·종교성·비행 친구·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3), 2006
- 김종서, 『종교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5.
- 김형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박병희·장경준·신지용,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의 도덕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1996
- 박영신,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수준과 종교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박종영·이종현,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3), 1982
- 박효정·정광희·유균상·원현주,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 박효정·정광희,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1
- 반신환, 「대학생의 종교, 종교성, 윤리의식 및 종교적 대처」, 『종교연구』 34, 2004
- 송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 송정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제론』, 서울: 서원, 1996
- 양병한·김종구, 「종교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연구』, 7, 1994
- 양영진, 「뒤르켐의 종교의식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 26, 1992
- 오승은, 「삶의 목적 수준과 종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유현정. 「인구학적 변인·부모관련변인 및 또래동조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 이길홍·김헌수·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21(4). 1982
- 이영주. 「현대 도덕교육의 쟁점」. 『국민윤리연구』 52 2003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05
- 전성표. 「개신교인과 무종교인 사이의 도덕성 차이와, 개신교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 『한국사회학』 34. 2000
- 한내창.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2001
- Aubert. J. M., *La conscience et la loi*. In Laubert, B. & Refoulé, F. (Dir.), *Initiation à la pratique de
la théologie IV*, Paris: Cerf, 1993
- Batson. C. D.,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1), 1976
- Benda. B. B., & Corwyn, R. F.,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1), 1997
- Burkett. S. R., & Bruce, O. W., *Adolescent marijuana use: a panel study of underlying casual structures*,
Criminology, 25, 1987
- Cochran. J. K., Wood, P. K., & Arneklev, B. J., *Is the religiosity-delinquency relationship spurious?: A
test of arousal and social control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1994
- Coleman. J. C., & Hendry, L. B., 강영배·김기현·이은주 역.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파주: 성안당. 2006
- Creswell. J. W.,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evaluating quan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Upper Saddle River, N. J.: Merrill Prentice Hall, 2002
- Damon. W., 조강모 역. 『아동 도덕발달과 열린교육』. 서울: 문음사. 1997
- Guttmann. J., *Cognitive morality and cheating behavior in religious and secular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7(4), 1984
- Hirschi. T., & Stark, R., *Hel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 1969
- Johnstone. R. L., *Religion in Society*. New Jersey: Prentice Hall, 2001
- King. M. B., & Hunt, R.,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s: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975
- Lee. J. W., and Gail T. R., & Gillespie, V. B., *Family worship patter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dolescent behavior and belie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3), 1997
- Scheepers. P., Grotenhuis, M. T., & Slik, F. V(der), *Education, religiosity and moral attitudes: Explaining*

cross-national effect differences, *Sociology of Religion*, 63(2), 2002

Smetana. J. G., *The role of parents in moral development: A social domain analysi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1999

Tashakkori. A., & Teddie. C.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염시창 역. 『통합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01

원고접수: 2007년 6월 2일 1차심사: 6월 10일 게재승인일: 6월 22일

연구자 소개: 조발그니

① 전공: 교육사회학 / 소속: 전남대학교 강사

② 관심영역: 종교사회, 청소년 종교교육, 교육열, 교육복지

③ 주요논저: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음선포에서 교회의 역할-교육의 문제」

④ E-mail: jovincent@hanmail.net

Abstract

Adolescents' Religiosity and their Morality: Moderating Effects and Differences in Background Variables

Balkeuni Cho

Chon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religiosity and mor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and differences in their background variables.

The questionnaires to measure religiosity, morality, and peer conformity were administered to 730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ality of adolescents who lived together with their par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Second, the religion of their mother affected the children's relig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dolescents' morality among the parental discipline styles. If the parental discipline style was based on permissive explanation, the adolescents' morality was higher than the style was repeating or authoritative. Third, the more the father's academic attainments, the higher the children's morality.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 religiosity between boys and girls.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morality. Especially, girls' morality in 'common rule and law' and 'humanity'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religiosity and moral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gender.

Further research with more in-depth interview and longitudinal survey is needed to explore richer data on adolescents' religious and moral development.

Key words : religiosity, morality, gender, peer relation, adolescents